

보육교사의 자기분화, 자기효능감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Self-differentiation and Self-efficacy on Psychological Well-being

김경희*, 김선희**

목포대학교 아동학과*, 목포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Kyung-Hee Kim(rosa@mokpo.ac.kr)*, Sun-Hee Kim(hee0974@hanmail.net)**

요약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자기분화, 자기효능감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연구 대상은 K시와 J지역에 재직하고 있는 39개 보육기관 교사 293명이다. 연구도구는 자기분화척도와 자기효능감척도, 심리적 안녕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료는 t검증, 일원변량분석, 상관관계, 회귀분석으로 처리하였다. 연구결과, 보육교사의 일반적 배경인 연령에서 자기분화와 자기효능감, 심리적 안녕감에 차이가 나타났다. 자기분화와 자기효능감 그리고 심리적 안녕감은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심리적 안녕감에 자기분화와 자기효능감이 영향을 주는 변인임이 밝혀졌다. 즉, 심리적인 갈등과 불안을 경험하고 있는 교사는 유아를 따뜻하고 편안하게 지도하기에 미흡하다. 이는 보육교사가 자신과 유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며 자기성숙을 위한 전문인으로써 자신의 능력이나 소질을 개발해야 함을 시사한다.

■ **중심어** : | 자기분화 | 자기효능감 | 심리적 안녕감 |

Abstract

This research purposed to verify early childhood teacher's self-differentiation and self-efficacy on psychological well-being. The subjects were 293 teachers in 39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in K city and J province. The research tools for measurement have been used to self-differentiation (Je Seokbong, 1989) self-efficacy (Park Seonyeong, 2012) and psychological well-being (Ko Kyungae, 2010). The data is analyzed through t test,

one-way analysis of variance, correlation, regression analysis. In conclusion, their ages of general background that have a distinction between self-differentiation and self-efficacy as well as psychological well-being, these two self-differentiation and self-efficacy have a correlation and for being affected by psychological well-being as a fluctuation. That is, teachers who have psychological struggle and anxiety are insufficient to teach young children warmly and comfortably, therefore, they should accept self and young children positively, maintain warm relationship, and develop their own ability or talent, and achieve self matureness as professionals.

■ **keyword** : | Self-differentiation | Self-efficacy | Psychological Well-Being |

I. 서론

현대사회는 핵가족화와 가족 구조의 변화, 저출산, 취업도의 증가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그 어느 때보다 증가하였다. 따라서 부모를 대신하여 영유아를 돌보고 교육하기 위한 유아교육기관의 수요도 증가하여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수용하였으며, 이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유아보육기관의 확충으로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의 요구를 충족하고자 하고 있다[33]. 이에 유아가 기관에 입학하는 시기가 빨라지고 있고 기관에 머무르는 시간 또한 길어지고 있어 낮은 교사와 낮은 환경과 또래와 관계를 맺으며 적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그러므로 유아교육기관의 교사들은 누구보다 심리적, 정서적으로 따뜻한 성품을 지녀야 하며 보다 긍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어 기관에서 영유아와 정서적 관계가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보육교사와 유아와의 관계는 교사가 유아를 지도하거나 업무를 처리하는 등에 모든 영역에 영향을 줄 것이며 그러한 영향은 결국 교사의 심리적 요인과 삶의 질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따라서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심리적 안녕감이란 자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타인과의 신뢰감과 따뜻한 관계를 형성하여 주변 환경을 잘 통제·조절하고, 원칙이나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며, 삶의 목적이나 의미에 따라 자신의 능력이나 소질을 개발한다[12]. 심리적 안녕감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한 개인이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 사회가 이루고 있는 문화마다 중시하는 가치, 신념 등이 다르며, 개인에게 요구하는 기능이 다르므로, 심리적 안녕감 역시 문화적 배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35]. 심리적 안녕감이란 개인의 삶이 기쁘지, 삶의 만족과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지의 전체적인 삶의 만족도로 정의 된다[29].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나 조절의 정도를 결정해주기 때문에 자녀의 긍정적 사회정서 발달과 관련이 깊다고 하였다. 이는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가 긍정적일수록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할 수 있다[16]. 또한 부모의 심리적 자세가 긍정적일수록 유아는 부모의 감정을 전달받

아 감정을 인식하는 인지적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5]. 보육교사는 자신과 유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며 자기성숙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하는 전문가으로써 삶의 목적이나 의미에 따라 자신의 능력이나 소질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능력과 흥미에 맞는 보육활동을 제공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보육교사의 경험이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에 보육교사의 자질은 매우 중요하다. 보육교사의 자질에는 인간으로서, 전문가로서, 지도자로서의 자질 등이 있다[37]. 즉 모든 활동이 교사의 자질과 관계가 된다. 흔히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이는 아무리 교육환경이 좋더라도 교사가 그렇지 못할 경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14]. 보육교사는 변화하는 보육 과정 및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보육기관 평가인증제 도입으로 보육교사들은 긴장감과 부담감이 증가되어 교직원으로써 심리적인 갈등과 불안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교사 관련 연구들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연구의 초점이 변화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교사의 행동을 결정짓는 성격적 특성 및 사고과정과 내면적 측면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있다[17]. 특히, 보육교사는 유아들의 발달 특성상 정서적 돌봄과 지지가 필수적이고, 유아의 요구에 대한 교사의 반응은 교사가 지니는 심리·사회적 수준에 의해 영향 받는다는 점에서 보육교사의 내면적 특성은 다른 학령기 교사에 비해 매우 중요한 요건으로 평가 받는다[30][36].

자아분화는 개인적인 통합성을 상호 유지하는 역동적 과정이며 인간의 계속적으로 잠재능력을 발휘하여 변화에 적응하는 것을 말한다[39]. 자기분화란 가족체계이론에서 제시한 핵심 개념으로 미분화된 가족자아 덩어리에서 자신을 분리 독립시켜 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28]. 자기분화가 높은 사람일수록 독립적인 사고와 신념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주체적인 의사 결정을 한다[33]. 가족으로부터의 적절한 분화를 이룬 사람은 균형 잡힌 사고와 감정을 이루고 있어 불안한 상황과 직면하더라도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한다[9]. 자기분화는 개인의 사고와 정서를 분리시킬 수 있는 능력과

함께 가족원이나 어머니와 같은 의미있는 타인 (significant others)과의 관계에서 관계 훼손이나 정서적 성숙과정과 독립성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28][33]. 따라서 자기분화 수준이 낮으면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고 관계 맺기 보다는 자신이 맺어 왔던 관계, 느껴왔던 감정 등을 상대에게 투사하거나 전이시키는 등 과거의 자신의 삶의 방식이 현재 상황을 재해석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13]. 최근 자기분화 관련 연구는 상담관련 분야에서 소개되고 있으며 부부 대상[3][18], 청소년 대상[23], 부모-자녀 관계[7][11]등으로 진행되었다.

가족으로부터의 자기분화를 이룬 교사는 균형 잡힌 사고와 감정을 이루게 되고 교사로서 자기효능감이 필요하다. 교사의 자기효능감은 교사의 전문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 전문성은 직무를 원만하게 수행할 직업적 기술이나 자격뿐만 아니라 교사의 인간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교사에게 나타나는 자기효능감 즉, 교사효능감이란 교사의 교육과 관련된 효능적 신념으로 학생들의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학급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구조화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10]. 자기효능감이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어 왔고 이를 교육에 적용한 것이 교사효능감이다. 교사효능감은 교육기관의 학습에 교사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교사의 기대나 믿음을 의미한다[26]. 자기효능감을 교사의 교수행동으로 나타나는 교사의 신념을 측정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일반적으로 자기효능감이란 어떤 결과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는 개인능력에 대한 판단이며 효능감이 높은 교사의 특징은 훌륭한 교사가 갖추어야 할 덕목과 일치하고 교사의 교수 행위를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개념이다[27].

교사효능감 관련연구는 교사의 수행정도를 밝힌 연구[1][19][24]에서 효능감이 높은 교사일수록 높은 학문적 수준을 유지하고 학생의 과제 참여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며 따뜻하고 지지적인 교실 환경을 개발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혁신적인 교수기술을 많이 사용하고 인본적인 학급경영을 실시하였으며 교사에게 지도받은 학생들은 학습참여와 학업성취 및 동기유발에서도 능

력을 보였다.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과제에 대한 집중력과 지속성, 성취 수준을 높일 수 있으며 그 결과 긍정적인 자기상(self-image)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높은 자기효능감을 지닌 교사는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이끌어가는 성공시나리오를 시각화하고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그들이 요구되는 기술을 가지고 있을 때 과제에 더 끈기 있게 매달린다 [32]. 반면 낮은 효능감을 가진 교사는 실패 시나리오를 시각화하는 경향이 있고 일에 대한 낮은 성취감을 예측하여 비효능적인 사고를 가지며 성취동기를 약화시키고 수행을 저하시킨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연령에 따른 자기분화, 자기효능감, 심리적 안녕감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교사의 자기분화 및 자기효능감, 심리적 안녕감 영역의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보육교사의 자기분화 및 자기효능감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1. 보육교사의 연령에 따른 자기분화, 자기효능감, 심리적 안녕감은 차이가 있는가?
2. 보육교사의 자기분화, 자기효능감,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가 있는가?
3. 보육교사의 자기분화 및 자기효능감은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인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5년 4월 10일부터 4월 25일까지 2주에 걸쳐 K시와 J지역의 보육기관 39개 기관을 임의 표집하여 연구대상을 293명으로 선정하였다. 보육교사의 일반적 배경은 [표 1]과 같다. 보육교사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남교사 2명(0.7%), 여교사 291명(99.3%)로 여교사가 대부분이었고, 연령은 21~30세가 85명(29.0%), 31~40세가 96명(32.8%), 41세 이상이 112명(38.2%)으로 41세 이상 교사가 가장 많았다. 경력은 3년 이하가 100명(34.1%), 4년 이상~6년 이하가 86명(29.4%), 7년 이상~10년 이하가 62명

(21.2%), 11년 이상이 45명(15.4%) 순이었고 3년 이하가 가장 많았다. 결혼여부는 미혼이 93명(31.7%), 기혼이 200명(68.3%)으로 기혼이 더 많았다. 기관유형은 민간이 113명(38.6%), 자정이 78명(26.6%), 직장이 34명(11.6%), 기타가 35명(11.9%), 법인이 28명(9.6%), 국공립이 5명(1.7%) 순으로 민간이 가장 많았다. 기관규모는 99인 미만이 105명(35.8%), 100인 이상이 94명(32.1%), 20인 미만이 78명(26.6%), 100인 이상이 94명(32.1%), 39인 미만이 16명(5.5%) 순으로 99인 미만이 가장 많았다.

2. 연구도구

2.1 자기분화 척도

자기분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Bowen의 자기분화 척도를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제작한 제석봉(1989)의 자기분화척도를 사용하였다[22]. 자기분화 척도는 5가지 하위 변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지적기능 대 정서적 기능 7문항, 자아통합 6문항, 가족투사과정 6문항, 정서적 단절 5문항, 가족퇴행 12문항이다. 각 문항들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 2점(조금 그렇지 않다), 3점(조금 그렇다), 4점(매우 그렇다)까지 4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분화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검사 척도의 신뢰도(Cronbach α 계수)는 전체적으로 .86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하위영역별 신뢰도(Cronbach α 계수)는 지적기능 대 정서적 기능 .74, 자아통합 .66, 가족투사과정 .88, 정서적 단절 .60, 가족퇴행 .83 이었다.

2.2 자기효능감 척도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Tschannen-Moran(2000)이 개발한 Ohio state Teacher Efficacy Scale(OSTES)를 김유정(2004)이 우리나라 교육상황에 맞게 수정 변안한 박선영(2012)이 사용한 교사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4][8]. 척도는 모두 10문항으로 구성되며, 각 문항들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 2점(조금 그렇지 않다), 3점(조금 그렇다), 4점(매우 그렇다)까지 4점 Likert 척도이며 자기효능감은 최소 10점에서 최대 40점까지 분포를 보이게 되며 점수가 클수록 높은 자기효능감을 나타내게 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 .86으로 나타났다.

2.3 심리적 안녕감 척도

심리적 안녕감의 측정하기 위해서 Ryff(1989)의 심리적 안녕감 척도(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PWRs)를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2001)가 수정 보완한 질문지를 고경애(2010)가 요인분석하여 15문항을 선정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2][35][38]. 척도는 모두 15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각 문항들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 2점(그렇지 않다), 3점(보통이다), 4점(그렇다), 5점(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자율성 .74이고, 통제력은 .81, 성숙함은 .63, 자긍심은 .74로 나타났다.

3.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5년 4월 10일부터 4월 25일까지 2주에 걸쳐 K시와 J지역의 보육기관 39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예비조사는 본조사가 실시되기 3일전 2일동안 설문지 문항의 오류 등을 파악하기 위해 K시 소재 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본 조사의 설문지는 총 330부를 배포하였으며, 수집된 자료 310부이다. 이중 무성의하거나 오류가 많은 응답 자료를 제외하여 293부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수집방법은 본 연구자로부터 직접 설문을 듣고 설문지를 작성하거나 본 연구자로부터 오리엔테이션을 받은 사람들이 질문지를 배포한 후 다시 수거해 오는 방법을 취했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하여 SPSS WINDOWS 18.0을 사용하여 빈도 분석(Frequency Analysis)과 연구도구별 신뢰도를 측정을 위해 Cronbach's α 를 분석하였다.

보육교사의 배경변인(연령)에 따른 자기분화와 자기효능감,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과 일원분산분석을 하였고, 각 집단 간의 평균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 변인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 상관계수를 산출하고 변인간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보육교사의 연령에 따른 자기분화, 자기효능감, 심리적 안녕감

보육교사의 연령에 따른 자기분화, 자기효능감,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과 일원분산분석을 하였고 이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1.1 연령에 따른 자기분화의 차이

보육교사의 연령에 따른 자기분화의 차이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령에 따른 자기분화의 차이

	연령	M	SD	F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21~30세(M=85)	3.01	.416	2.936
	31~40세(M=96)	3.12	.369	
	41세 이상(M=112)	3.15	.444	
자아의 통합	21~30세(M=85)	2.58	.358	.641
	31~40세(M=96)	2.58	.287	
	41세 이상(M=112)	2.62	.290	
가족투사 과정	21~30세(M=85)	3.27	.552	.072
	31~40세(M=96)	3.25	.555	
	41세 이상(M=112)	3.28	.548	
정서적 단절	21~30세(M=85)	2.90	.472	1.080
	31~40세(M=96)	2.85	.415	
	41세 이상(M=112)	2.80	.469	
가족퇴행	21~30세(M=85)	3.17	.426	2.589
	31~40세(M=96)	3.04	.399	
	41세 이상(M=112)	3.05	.432	
자기분화 전체	21~30세(M=85)	2.98	.297	.087
	31~40세(M=96)	2.97	.267	
	41세 이상(M=112)	2.98	.291	

[표 1]과 같이 보육교사의 연령에 따른 자기분화 전체점수를 살펴보면 21~30세(M=2.98, SD=.297)와 41세 이상(M=2.98, SD=.291)의 평균점수가 같았고 다음으로 31~40세(M=2.97, SD=.267)순이었으나 통계적(F=.087, P>.05)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기분화의 하위영역인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을 살펴보면 41세 이상(M=3.15, SD=.444), 31~40세(M=3.12, SD=.369), 21~30세(M=3.01, SD=.416)순으로 나타났고 통계적(F=2.936, P>.05)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기분화의 하위영역인 '자아의 통합'을 살펴보면 41세 이상(M=2.62, SD=.290), 31~40세(M=2.58, SD=.287), 21~30세(M=2.58, SD=.358)순으로 나타났고

통계적(F=.641, P>.05)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기분화의 하위영역인 '가족투사 과정'을 살펴보면 41세 이상(M=3.28, SD=.548), 21~30세(M=3.27, SD=.552), 31~40세(M=3.25, SD=.555) 순으로 나타났고 통계적(F=.072, P>.05)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기분화의 하위영역인 '정서적 단절'을 살펴보면 21~30세(M=2.90, SD=.472), 31~40세(M=2.85, SD=.415), 41세 이상(M=2.80, SD=.469)순으로 나타났고 통계적(F=1.080, P>.05)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기분화의 하위영역인 '가족퇴행'을 살펴보면 21~30세(M=3.17, SD=.426), 41세 이상(M=3.05, SD=.432), 31~40세(M=3.04, SD=.399), 순으로 나타났고 통계적(F=2.589, P>.05)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1.2 연령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

보육교사의 연령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연령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

	연령	평균	표준편차	F	sheffé
자기효능감	21~30세(M=85)	28.94	3.141	3.355*	①-③
	31~40세(M=96)	29.57	3.635		
	41세이상(M=112)	30.17	3.119		

* p<.05

[표 2]와 같이 보육교사의 연령에 따른 자기효능감 점수를 살펴보면 41세 이상(M=30.17, SD=3.119), 31~40세(M=29.57, SD=3.635), 21~30세(M=28.94, SD=3.141) 순으로 나타났고 통계적(F=3.355, P<.05)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증을 위하여 sheffé 분석을 실시한 결과 41세 집단과 21~30세 집단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1.3 연령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

보육교사의 연령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연령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

	연령	평균	표준편차	F	sheffé
자율성	21~ 30세(M=85)	9.29	1.203	3.439*	①-③
	31~ 40세(M=96)	9.60	1.021		
	41세이상(M=112)	9.72	1.224		
통제력	21~ 30세(M=85)	17.49	2.524	10.838***	①-③ ②-③
	31~ 40세(M=96)	18.18	2.308		
	41세이상(M=112)	19.13	2.601		
성숙감	21~ 30세(M=85)	10.18	2.401	1.309	
	31~ 40세(M=96)	10.00	2.262		
	41세이상(M=112)	9.65	2.343		
자극성	21~ 30세(M=85)	13.21	1.946	2.816	
	31~ 40세(M=96)	13.93	2.048		
	41세이상(M=112)	13.53	2.092		
심리적 안녕감 전체	21~ 30세(M=85)	50.18	5.123	3.388*	①-③
	31~ 40세(M=96)	51.71	5.086		
	41세이상(M=112)	52.04	5.293		

* p<.05, *** p<.001

[표 3]와 같이 보육교사의 연령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 전체점수를 살펴보면 41세 이상(M=52.04, SD=5.219), 31~40세(M=51.71, SD=5.086), 21~30세(M=50.18, SD=5.123)순으로 나타났고 통계적(F=3.388, P<.05)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증을 위하여 sheffé 분석을 실시한 결과 41세 집단과 21~30세 집단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영역인 자율성을 살펴보면 41세 이상(M=9.72, SD=1.203), 31~40세(M=9.60, SD=1.021), 21~30세(M=9.29, SD=1.203)순으로 나타났고 통계적(F=3.439, P<.05)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증을 위하여 sheffé 분석을 실시한 결과 41세 집단과 21~30세 집단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영역인 통제력을 살펴보면 41세 이상(M=19.13, SD=2.601), 31~40세(M=18.18, SD=2.308), 21~30세(M=17.49, SD=2.524)순으로 나타났고 통계적(F=10.838, P<.001)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증을 위하여 sheffé 분석을 실시한 결과 41세 집단과 21~30세 집단, 41세 집단과 31~40세 집단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영역인 성숙감을 살펴보면 21~30세(M=10.18, SD=2.401), 31~40세(M=10.00, SD=2.262), 41세 이상(M=9.65, SD=2.343)순으로 나타났고 통계적(F=1.309, P>.05)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영역인 자극성을 살펴보면 31~40세(M=13.93, SD=2.048), 41세 이상(M=13.53, SD=2.092), 21~30세(M=13.21, SD=1.946)순으로 나타났고 통계적(F=2.816, P>.05)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보육교사의 자기분화, 자기효능감 및 심리적 안녕감간의 관계

보육교사의 자기분화, 자기효능감 및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자기분화, 자기효능감 및 심리적 안녕감간의 상관관계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자아의 통합	가족투사 과정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	자기효능감	자율성	통제력	성숙감	자극성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									
자아의 통합	.048	-								
가족투사 과정	.483 (**)	-.007	-							
정서적 단절	.300 (**)	.035	.431 (**)	-						
가족퇴행	.442 (**)	.101	.354 (**)	.403 (**)	-					
자기효능감	.351 (**)	.124 (*)	.354 (**)	.234 (**)	.400 (**)	-				
자율성	.143 (*)	.418 (**)	.106	-.042	.100	.213 (**)	-			
통제력	.345 (**)	.116 (*)	.289 (**)	.046	.324 (**)	.504 (**)	.270 (**)	-		
성숙감	.145 (*)	.248 (**)	.126 (*)	.046	.213 (**)	.074	.101	.046		
자극성	.336 (**)	.128 (*)	.261 (**)	.288 (**)	.347 (**)	.428 (**)	.191 (**)	.449 (**)	.133 (*)	-

*p<.05 **p<.01.

[표 4]에서와 같이 자기분화와 심리적 안녕감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자기분화의 하위요인인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은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인 자율성($r=.143, p<.05$)과 통제력($r=.345, p<.01$), 성숙감($r=.145, p<.05$), 자긍심($r=.336, p<.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자기분화의 하위요인인 '자아의 통합'은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인 자율성($r=.418, p<.01$)과 통제력($r=.116, p<.05$), 성숙감($r=.248, p<.01$), 자긍심($r=.128, p<.05$)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자기분화의 하위요인인 '가족투사 과정'은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인 자율성에서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고 통제력($r=.289, p<.01$), 성숙감($r=.236, p<.05$), 자긍심($r=.261, p<.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자기분화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단절'은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인 자율성($r=-.042, p>.05$), 통제력($r=.046, p>.05$), 성숙감($r=.046, p>.05$)에서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고 자긍심($r=.288, p<.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자기분화의 하위요인인 '가족퇴행'은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인 자율성($r=.100, p>.05$)에서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고 통제력($r=.324, p<.01$), 성숙감($r=.213, p<.01$), 자긍심($r=.347,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즉 자기 분화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도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 중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은 '자아의 통합'과 자율성이었다.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안녕감과 상관을 살펴보면 자기효능감은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인 자율성($r=.213, p<.01$), 통제력($r=.504, p<.01$), 자긍심($r=.428, p<.01$)에서는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고 성숙감($r=.074, p>.05$)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도 높아짐을 의미한다. 특히 자기 효능감과 통제력이 가장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 자기효능감과 자기분화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자기효능감은 자기분화의 하위요인인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r=.351, p<.01$)과 '자아의 통합'($r=.124, p<.05$), '가족투사 과정'($r=.354, p<.01$), '정서적 단절'($r=.234, p<.01$), '가족퇴행'($r=.400,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자기분화도 높아짐을 의미한다. 특히 자기효능감과 '가족퇴행'이 가장 높은 상관

($r=.400, p<.01$)을 나타냈다.

3. 보육교사의 자기분화 및 자기효능감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보육교사의 자기분화 및 자기효능감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자기분화와 자기효능감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심리적 안녕감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3.1 보육교사의 자기분화 및 자기효능감이 심리적 안녕감 전체에 미치는 영향

보육교사의 자기분화 및 자기효능감이 심리적 안녕감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자기분화 및 자기효능감이 심리적 안녕감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

독립변인	B	β	t	공선성 공차	통계량 VIF	R ²	F
(상수)	14.107		4.442***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1.919	.153	2.666**	.671	1.490	.369	27.831 ***
자아의 통합	3.308	.197	4.137***	.976	1.024		
가족투사 과정	1.060	.112	1.916	.649	1.540		
정서적 단절	-1.002	-.087	-1.598	.742	1.347		
가족퇴행	2.140	.173	3.022**	.671	1.490		
자기효능감	.524	.334	6.227***	.767	1.305		

** $p<.01$, *** $p<.001$

[표 5]에서와 같이 자기분화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기분화의 하위요인 중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t=2.666)이 $p<.01$ 의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인의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준화계수를 살펴보면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beta=.153$)이 심리적 안녕감 전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의 통합'(t=4.137)이 $p<.001$ 의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인의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준화계수를 살펴보면 '자아의 통합'($\beta=.197$)이 심리적 안녕감 전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퇴행'(t=3.022)이 $p<.01$ 의 수준에서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인의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준화계수를 살펴보면 '가족퇴행' ($\beta=.173$)이 심리적 안녕감 전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기효능감($t=3.022$)이 $p<.01$ 의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인의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준화계수를 살펴보면 자기효능감($\beta=.173$)이 심리적 안녕감 전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분화와 자기효능감은 심리적 안녕감 전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설명력은 36.9%($F=27.831, p<.001$)로 나타났다.

3.2 보육교사의 자기분화 및 자기효능감이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인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

보육교사의 자기분화 및 자기효능감이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인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자기분화 및 자기효능감이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인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력

독립변인	B	β	t	공선성 공차	통계량 VIF	R ²	F
(상수)	6.033		7.078***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011	.004	.058	.671	1.490		
자아의 통합	.614	.164	2.862**	.976	1.024	.087	4.535
가족투사 과정	.161	.076	1.083	.649	1.540		
정서적 단절	-.082	-.032	-.487	.742	1.347		
가족퇴행	-.238	-.086	-1.251	.671	1.490		
자기효능감	.079	.225	3.492**	.767	1.305		

** $p<.01$, *** $p<.001$

[표 6]에서와 같이 자기분화가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인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기분화의 하위요인 중 '자아의 통합'($t=2.862$)이 $p<.01$ 의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인의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준화계수를 살펴보면 '자아의 통합'($\beta=.164$)이 자율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이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인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기효능감($t=3.492$)이

$p<.01$ 의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인의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준화계수를 살펴보면 자기효능감($\beta=.225$)이 자율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분화와 자기효능감은 자율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설명력은 8.7%($F=4.535, p<.001$)로 나타났다.

3.3 자기분화 및 자기효능감이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인 통제력에 미치는 영향

보육교사의 자기분화 및 자기효능감이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인 통제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자기분화 및 자기효능감이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인 통제력에 미치는 영향력

독립변인	B	β	t	공선성 공차	통계량 VIF	R ²	F
(상수)	4.206		2.602*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909	.147	2.481*	.671	1.490		
자아의 통합	.448	.054	1.100	.976	1.024	.324	22.889
가족투사 과정	.541	.116	1.920	.649	1.540		
정서적 단절	-1.112	-.196	-3.482**	.742	1.347		
가족퇴행	.804	.132	2.230*	.671	1.490		
자기효능감	.306	.397	7.155***	.767	1.305		

* $p<.05$, ** $p<.01$, *** $p<.001$

[표 7]에서와 같이 자기분화가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인 통제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기분화의 하위요인 중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t=2.481$)이 $p<.05$ 의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인의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준화계수를 살펴보면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beta=.147$)이 통제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분화의 하위요인 중 '정서적 단절'($t=-3.482$)이 $p<.01$ 의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인의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준화계수를 살펴보면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beta=-.196$)이 통제력에 부적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분화의 하위요인 중 '가족퇴행'($t=2.230$)이 $p<.05$ 의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인의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준화계수를

살펴보면 '가족퇴행'(β=.132)이 통제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이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인 통제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기효능감(t=7.155)이 p<.001의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인의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준화계수를 살펴보면 자기효능감(β=.397)이 통제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분화와 자기효능감은 통제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설명력은 32.4%(F=22.889, p<.001)로 나타났다.

3.4 보육교사의 자기분화 및 자기효능감이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인 성숙함에 미치는 영향

보육교사의 자기분화 및 자기효능감이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인 성숙함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는 [표 8]와 같다.

표 8. 자기분화 및 자기효능감이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인 성숙함에 미치는 영향력

독립변인	B	β	t	공선성 공차	통계량 VIF	R ²	F
(상수)	2.319		1.374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285	.051	.744	.671	1.490		
자아의 통합	1.793	.238	4.218***	.976	1.024	.110	5.912
가족투사 과정	.392	.092	1.332	.649	1.540		***
정서적 단절	-.407	-.079	-1.222	.742	1.347		
가족퇴행	1.056	.191	2.806**	.671	1.490		
자기효능감	-.045	-.064	-.999	.767	1.305		

** p<.01, *** p<.001

[표 8]에서와 같이 자기분화가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인 성숙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기분화의 하위요인 중 '자아의 통합'(t=4.218)이 p<.001의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인의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준화계수를 살펴보면 '자아의 통합'(β=.238)이 성숙함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분화의 하위요인 중 '가족퇴행'(t=2.806)이 p<.01의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인의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준화계수를 살펴보면 '가족퇴행'(β=.191)이 성숙함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분화와 자기효능감은 성숙함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설명력은 11.0%(F=5.912, p<.001)로 나타났다.

3.5 자기분화 및 자기효능감이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인 자긍심에 미치는 영향

보육교사의 자기분화 및 자기효능감이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인 자긍심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자기분화 및 자기효능감이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인 자긍심에 미치는 영향력

독립변인	B	β	t	공선성 공차	통계량 VIF	R ²	F
(상수)	1.549		1.146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714	.145	2.330*	.671	1.490		
자아의 통합	.454	.069	1.333	.976	1.024	.258	16.56
가족투사 과정	-.033	-.009	-.140	.649	1.540		2***
정서적 단절	.599	.133	2.244*	.742	1.347		
가족퇴행	.518	.107	1.719	.671	1.490		
자기효능감	.183	.298	5.118***	.767	1.305		

* p<.05, *** p<.001

[표 9]에서와 같이 자기분화가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인 자긍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기분화의 하위요인 중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t=2.330)이 p<.05의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인의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준화계수를 살펴보면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β=.145)이 심리적 안녕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분화의 하위요인 중 '정서적 단절'(t=2.244)이 p<.05의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인의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준화계수를 살펴보면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β=.133)이 안녕5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이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인 안녕5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기효능감(t=5.118)이 p<.001의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인의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준화계수를 살펴보면 자기효능감(β=.298)이 심리적 안녕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분화와 자기효

능감은 자긍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설명력은 25.8%($F=16.562$, $p<.001$)로 나타났다.

IV. 논 의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자기분화 및 자기효능감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K시와 J지역 보육기관 29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교사의 자기분화, 자기효능감,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의 배경변인(연령)에 따른 자기분화와 자기효능감,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안녕감이 연령(40세, 20세)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보육교사가 근무경력에서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안녕감에 대하여 각기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경력 교사에서 유의한 차이는 박순천과 백경임(2011)연구[9]에서와 같이 가족으로부터의 적절한 분화를 이룬 사람은 균형 잡힌 사고와 감정을 이루고 있어 불안한 상황과 직면하더라도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연구와도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보육교사의 자기분화와 자기효능감,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자기분화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인지 대 정서적 기능, 자율성, 통제력, 성숙감, 자긍심에서 정적 상관이 있으며, 자기분화의 가족투사 과정,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에서 유의한 상관을 보여주었다. 이는 정혜정과 조은경(2007)의 연구[21]에서와 같이 심리내적 요인 뿐 아니라 심리내적 분리와 관계적 측면에서 자기분화가 더 적절하다는 연구와 강영심·황순영(2005)연구[1]에서와 같이 자기효능감이 높은 교사일수록 높은 학문적 수준을 유지하고 학생의 과제 참여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며 따뜻하고 지지적인 교육 환경을 개발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를 부분적으로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보육교사의 자기분화와 자기효능감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자기분화의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자아통합, 가족퇴행 및 자기효

능감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이 있다고 나타났다. 자기분화가 심리적 안녕감의 통제력, 자긍심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과 신뢰성 있고 따뜻한 관계를 형성하며, 주변 환경을 잘 통제·조정하고, 스스로의 원칙이나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며, 나름대로 삶의 목적이나 의미를 견지하고서 자신의 능력이나 소질을 키워간다는 양병환(2003) 연구[12]와 김현옥(2002), 이경숙(2002)연구[6][15]에서와 같이 성인의 심리적 자제가 긍정적일수록 유아는 교사의 정서를 전달 받아 감정을 인식하는 인지적 능력에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자기분화와 자기효능감을 인식하고 근무하면서 나타나는 심리적 안녕감의 변인들을 찾아 스스로 조절하고 근무환경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그에 따른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는 김은정과 이종건(2010)의 연구[5]에서 보육교사 대처방식은 이들의 역할수행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와 보육교사의 직무와 연관된 각종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교사의 심리적 소진을 감소시킨다는 지명원, 이주연(2012)연구[25]와 그 맥락이 일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자기분화와 자기효능감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보육교사의 심리적인 안녕감을 증진시킴으로써 자기분화와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해 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즉 교사 자신의 심리적 갈등이 있는 불안한 교사는 유아를 편안하고 따뜻하게 지도하기에 미흡하므로 자기분화, 자기효능감 및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자아성장 프로그램이 개입되어야 함을 시사해 준다.

본 연구의 논의와 결론에 따른 제언을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K시와 J도 지역의 보육기관 교사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다수의 영아교사와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보육교사의 심리적인 요소는 각 개인의 특성과 개인차의 수준은 정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

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일시적인 연구가 아닌 종단적인 연구과정을 모색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만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였다 하지만 후속연구에서는 보육교사 뿐만 아니라 보육기관의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강영심, 황순영, “특수교사의 교사효능감 수준 및 영향요인 분석,” 특수교육학연구, 제40권, 제1호, pp.305-320, 2005.

[2] 고경애, *여성목회자의 가정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다중역할몰입, 자기효능감, 심리적 안녕감을 중심으로*,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3] 권선림, 이신화, 신지영, 친성문, “부부의 심리적 독립, 자기분화, 갈등해결전략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동서정신과학회지, 제15권, 제1호, pp.27-42.

[4] 김유정, *중등학교 가정과 교사의 교사효능감 유형과 관련 변인*,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5] 김은정, 이종건, “조직문화와 셀프리더십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기업경영연구, 제17권, 제1호, pp.81-101, 2010.

[6] 김현옥, “신대원생들의 내담자 경험이 자기개념대인관계 영적성숙에 미치는 영향,” 목회와 상담, 제17권, pp.277-297, 2002.

[7] 김혜원, *청소년 우울과 문제해결능력, 자기효능감, 생활사건 스트레스와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8] 박선영, *교사의 독서교육 학습공동체 활동이 직무만족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9] 박순천, 백경임, “대학생의 자아분화와 자기효능감이 대인관계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불교상담학회 한국불교상담학회지, 제3권, 제1호, pp.79-96, 2011.

[10] 박영신, 김의철, 박은실, “초등교사의 직무만족도와 직무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분석,” 교육과학연구, 제38권, 제3호, pp.29-52, 2009.

[11] 박찬옥, 조성희, “어머니의 자기분화와 양육태도 부모역할만족도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제15권, 제2호, pp.25-48, 2011.

[12] 양병한, “초등교사들의 심리적 안녕감: 그 구조 및 주관적 안녕감과 의 관계,” 교육학연구, 제41권, 제4호, pp.285-309, 2003.

[13] 우재현, *심성개발을 위한 교류분석(TA)프로그램*, 대구: 정암서원, 2000.

[14] 윤은중, 김희수, “예비보육교사의 생활양식 유형, 정신건강 및 자기능력 지각과의 관계,” 한국보육학회지, 제12권, 제4호, pp.151-166, 2012.

[15] 이경숙,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16] 이병래, *부모의 심리적 자세와 유아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17] 이유진, 김정미, “예비보육교사의 자기효능감과 부모애착, 자아분화, 학과만족도 간 관계,” 유아교육연구, 제33권, 제2호, pp.145-162, 2013.

[18] 임수연, 권순용, “원가족의 건강성, 자기분화, 부부관계의 인과적 관계의 성차,” 가족과 문화, 제23권, 제4호, pp.67-94, 2011.

[19] 전미옥, *특수교사의 발달단계와 교사효능감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20] 정은, *가족상담*, 서울: 창지사, 2009.

[21] 정혜정, 조은경, “한국형 자기분화 척도개발과 타당성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제15권, 제1호, pp.19-46, 2007.

[22] 제석봉, *자아분화와 역기능적 행동과의 관계 -Baven의 가족체계 이론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23] 조규판, 우수희, 송근혜, “대학생의 자기분화가

자아탄력성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 문제연구,” 제30권, 제4호, pp.59-80, 2012.

[24] 조은아, *특수교사의 개인적 교수효능감과 교수 수행정도 분석: 교사배경변인별 차이와 상관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25] 지명원, 이주연, “감정노동자의 직무스트레스 역할갈등, 자아탄력성 및 이직 의도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6호, pp.191-200, 2012.

[26] P. T. Ashton, “Teacher Efficacy : A Motivational Paradigm for Effective Teacher Educatio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Vol.35, No.5, 1984.

[27] A. Bandura, “Health Promotion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Cognitive Theory,” *Psychology and Health*, Vol.13, pp.623-649, 1998.

[28] M. Bowen,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Y and London, Jason Aronson, 1978.

[29] E. Diener, “Subjective well-being: The science of happiness, and a proposal for national index,” *American Psychologist*, Vol.55, pp.34-43, 2000.

[30] E. H. Erikson, *Childhood and Society(2nd ed.)*, New York: Norton, 1963.

[31] S. Gibson and M. Dembo, “Teacher efficacy: A construct validat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76, No.4, pp.569-582, 1984.

[32] G. Hackett and N. E. Betz,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a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18, pp.326-339, 1981.

[33] M. Kerr and M. Bowen, *Family evaluation: An approach based on Bowen theory*, New York: Norton Publishing, 1988.

[34] D. G. Knauth, E. A. Skowron, and M. Escobar, “Effect of differentiation of self on adolescent risk, behavior: Test of the theoretical model,” *Nursing Research*, Vol.55, pp.336-345, 2006.

[35] C. D. Ryff,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7, No.6, pp.1069-1082, 1989.

[36] D. W. Winnicott, “Desenvolvimento emocional primitivo. In: Winnicott, D. W. Da pediatria à psicanálise: obras escolhidas,” Rio de Janeiro: Imago, pp.218-232, 2000.

[37] 김은희, 황해익, “유치원 교사의 직무 전문성 자기평가 준거 개발 연구,” *열린유아교육 연구*, 제11권, 제3호, pp.285-307, 2006.

[38]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 개념 분석, *한국심리학회*, 제15권, 제2호, pp.19-39, 2001.

[39] 박영석, “고령자의 사회적 건강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8호, pp.325-335, 2015.

저 자 소 개

김 경 희(Kyung-Hee Kim)

정회원



- 1991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이학박사)
- 1992년 3월 ~ 현재 : 목포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관심분야> : 아동심리, 상담, 보육

김 선 희(Sun-Hee Kim)

정회원



- 2013년 8월 :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학과 (석사)
- 2014년 3월 ~ 현재 : 목포대학교 일반대학원 가정학과 박사수료

<관심분야> : 아동심리, 상담, 보육